

제 목	면역계 질환 치료제로서의 인삼의 생리활성 성분의 개발 연구
연구자	이 시 용, 김 경 만, 임 동 구, 오 기 완, 최 수 형
소 속	전남대학교 약학대학, 충북대학교 약학대학
내 용	<p>인삼이 면역계 질환의 일종인 과민성 반응에 대한 치료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<i>in vivo</i>와 <i>in vitro</i>실험을 수행하였다. <i>in vitro</i>실험으로서는 hyaluronidase의 활성을 지표로 삼았으며, <i>in vivo</i>실험에서는 mouse이각, rat등피부, 복강 비만 세포, 그리고 guinea pig의 ileum에서 면역반응에 대한 아답타겐의 작용을 관찰하였다.</p> <p><i>In vitro</i> 실험에서는 hyaluronidase와 histamine 분비를 항알레르기 작용의 지표로 사용하였다. hyaluronidase의 경우 그 활성은 CaCl₂로 활성화 시키기 전이나 후에 모두 아답타겐(100, 50, 및 10 mg/ml)에 의해서 현저하게 억제되었다. 한편 rat 복강 비만 세포에서의 histamine유리 시험에서는 아답타겐(0.5, 1, 5 mg/ml)이 histamine유리가 증가되었다. Guinea pig의 ileum 평활근에서는 아답타겐이 평활근 자극 작용없이 항히스타민 효과를 나타내었다.</p> <p><i>In vivo</i> 실험의 첫 단계로 우리는 혈관 투과성에 미치는 아답타겐의 효과를 mouse 이각과 rat 등피부에서 관찰하였다. Mouse이각에서의 실험에서는 histamine, serotonin, 그리고 LTC₄로 challenge하여 관찰한 결과 histamine과 serotonin의 경우, 혈관투과성 항진은 아답타겐(50-400mg/ml)에 의해서 유의성있게 억제되었으나, rat 등피부에서는 mouse에서와는 달리 48-hr PCA가 증가 되었고, histamine에 의한 혈관투과성 항진은 아답타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. 반면에 compound 48/80과 serotonin에 의한 혈관투과성 항진은 mouse 의 경우에서 처럼 아답타겐에 의해 억제되었다.</p>